

전주시, 드론축구 세계화 '첫 발'

28일 고양시 전주시장배 전국대회 진행 세계적 레저스포츠 산업도시 도약 기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수출을 모색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에 나선다.

전주시는 지난해 최첨단 드론기술과 탄소소재, ICT기술을 융복합해 신개념 e스포츠인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드론축구단을 창단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드론축구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로보유니버스 & K드론' 행사에 참석, 로보유니버스 주관사인 미국 라이징미디어사의 타일러 벤스터 동아시아 담당 투자디렉터와 미국 자판관리 및 투자 전문회사인 무어랜드 파트너스의 브라이언 도우 전무 등 해외 CEO 및 바이어들을 만나 드론축구 홍보에 나선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라이징미디어는 3D프린팅과 드론, IC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관

계자 등 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북미 1위의 인터넷 언론사 겸 국제 행사 기획사로, 김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김 시장은 이번 행사의 첫날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드론축구 성공사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드론축구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드론·3D 공동관을 운영하고, 드론축구 최초의 전국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는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추진위원회가 드론축구 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첫 공식대회

로, 전주시 드론축구단과 드론축구 동호회, 국내 지자체 선수단 등 전국 16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진표 추첨식은 오는 23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내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진행되며,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 방식은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등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 5대가 한 팀을 이뤄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때마다 1점을 획득하고, 드론 하나가 연속 득점을 못하도록 득점 후 10초 동안은 추가 점수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대회의 우승팀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며, 준우승팀과 3위 팀에게도 트로피와 함께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와 전국대회를

통해 드론축구가 해외에도 널리 소개되고, 동호인 등 드론축구의 저변이 확대돼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부장은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널리 보급하고, 드론축구 경기방식 등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 박진감 넘치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우승트로피와 상금을 놓고 격돌하는 첫 드론축구 공식대회를 통해 드론축구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 열리는 '로보유니버스&K드론'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그룹인 RisingMedia와 한국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B2B 전문 행사로, 최첨단 로봇기술과 드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환경관리원 채용 체력평가가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평가에 참가한 한 응시생이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하고 있다.

“모래주머니 등에 메고 끝까지 뛰어라”

전주시, 환경관리원 신규채용 체력평가 실시

전주시는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지역 환경관리원 신규채용을 위한 체력평가를 실시했다.

체력평가는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될 경우 수행하게 될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필요한 기초체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 이날 평가에는 지난달 접수된 583명의 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를 통과한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2.4대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적성검사를 통과한 37명의 응시자들은 이날 윗몸일으키기, 20kg 모래주머니 들고 50m 달리기, 20m 기준점을 왕복하는 오래달리기 등 3종목으로 체력 평가에 임했다.

특히, 시는 체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출발신호 및 기록 측정 등을 전담토록 하고, 응시자에게 본인의 계측기록을 현장에서 직접 확

인한 후 서명하도록 해 투명한 평가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이날 체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득점자 22명을 가려낼 계획이며, 최종 18명의 합격자는 오는 29일 모 예정된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완산구, 청소년 보호 캠페인

완산구는 20일 전주 전일고를 방문 해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등 비행 및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해 급식실 인구에 유해약물의 종류, 흡연과 음주 예방 등 10여점을 전시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로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의회,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전문가 초청강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도개선연구회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진욱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는 "누구를 위한 감정노동인가?"란 주제로 서비스 사회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전주시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발표에서는 지난 3월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영규 의원이 조례 배경과 향후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고,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 최성희 과장이 전주시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주관한 이병하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전주시 정책 마련과 사회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열어

강경숙 글로벌코칭센터 대표 강연

전주시가 취업인식 전환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나섰다.

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일 센터 강의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전주시 여성 130여명을 대상으로 '제2차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을 개최했다.

'나만의 퍼스널브랜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은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고 취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강경숙 글로벌리더코칭센터 대표가 강연했다.

강 대표는 이날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이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여성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올바른 직업정보를 제공해, 참석한 여성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재난 없는 안전 여름 위해”

전주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합동 간담회 개최

전주시는 20일 한옥마을 내 최명희 문화관에서 전주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현웅 전북도도민안전실장, 양도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10여명과 전주시 민간예찰단원 30명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여름철 안전사고 종류와 안전 신고요령,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민간예찰단의 향후 활동계획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끝난 후 한옥마을 일원에서 합동예찰활동과 시민들과 상가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선제적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0월 조직된 전주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안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128명으로 구성됐다.

성태은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해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박용업 전주시 민간예찰단장은 "이번 간담회와 합동 예찰활동을 통해 전주시 민간예찰단이 더욱 활발한 예찰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재난은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숨어있는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예찰 및 신고활동을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이 이루어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서울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